

유럽, 콜라주 '인드라망'에 빠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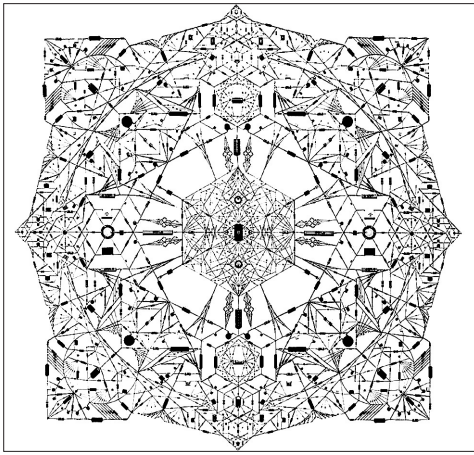
전자 기기 가득한 세상, 이곳에도 부처님의 세계관 인드라망은 존재할까?

《Wired》지는 “유럽 미술계에서 주목받는 콜라주 작가 레오나르도 유리안(Leonardo Ulian·43)이 2012년부터 선보이고 있는 시리즈 ‘만다라’에서 이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보도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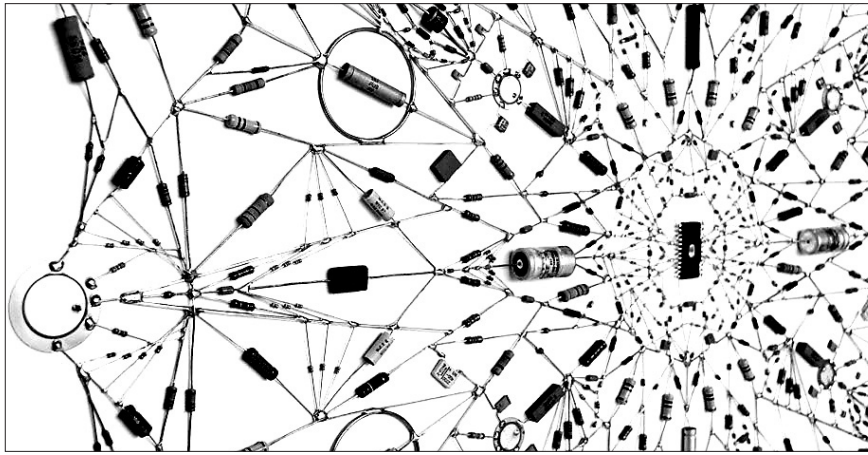
이에 따르면 작가 유리안이 전자 기기를 바라보는 시각은 남다르다. 생활의 편익을 추구하는 전자 기기를 통해 인간의 욕망을 보고, 전자 기기 회로도를 덮고 있는 전자 부품들을 통해 ‘본질이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변하게 된다’는 만다라의 뜻을 찾고 있다.

“전자 기기 속에서 불교 철학을 엿본 콜라주 작가 유리안은 유럽에서 가장 모던한 불교 미술가”라고 전제한다 《Wired》지는 “우리가 편익을 위해 전자 기기를 사용하고 있을 때, 그는 전자 기기의 안팎을 아우르며 철학적 사유를 읽어내고, 그 과정에서 모던한 아름다움의 전형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작가 유리안의 시리즈 ‘만다라’는 현재 유럽 미술계의 호평을 받고 있다. 미술평론가 마가렛 로드(Margaret Rhodes)에 따르면 만다라 시리즈는 만다



레오나르도 유리안의 연작 '만다라'. 전자 부품을 이용해 인드라망을 추상화 한 것으로 평가된다.



유리안은 “차이없는 부품을 연결해 나가는 과정이 인간의 마음자리를 찾는 시간”이라고 말한다.

작가 L. 유리안의 '만다라' 시리즈에 호평 “철학적이고... 변화의 가능성까지 담보”

라 특유의 기하학적 전통을 잇는 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작가 유리안의 오랜 명상 경험이 시각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전기 부품의 연결은 즉흥적이기 보다는 철학적이며, 항상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까지도 담보하고 있다.

“우리의 존재는 의식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 더욱 분명해진다”는 작가 유리안은 “전기 부품의 인드라망은 마치 우리 뇌의 신경회로와 같다”며 “미로와 같은 연결망, 즉 인드라망은 우리 의식을 추상화

표현한 그림의 모습”이라고 강조한다. 이에 대해 미술평론가 마가렛 로드는 “작품을 보는 순간 눈을 감고 생각에 몰두해야 하는 게 유리안의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이라며 “인드라망에서의 관계란 끊임 없이 변화하기 마련이고, 작품에 사용된 수많은 전자 부품 하나하나가 변화의 기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로드는 “작가 유리안에게 전자 부품이란 만다라의 모래알과 같다”고 덧붙이고, “전자 기기는 전자 부품을 하나의 개체

로 소유하고 있지만, 그 개체의 역할로 작동하지 않나”고 반문하고, “이는 ‘자기 자신만이 자신을 소유’ 하는 게 아닌 ‘우리가 우리를 소유’ 한다는 작가 유리안의 세계관이 반영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Wired》지는 “예술이 나아가 할 방향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 ‘사회와 사회’ 간의 연결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라는 레오나르도 유리안의 말을 인용하고, “유리안의 시리즈 ‘만다라’는 단순함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현대의 경향을 그대로 담고 있다”며 “전자 부품으로 연결되어 있는 유리안의 작품에서 ‘지금의 행복은 지난 시간의 특정한 순간으로 가능하다’는 교훈에 유럽의 대중들이 크게 공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보로부두르, 폭탄 테러 위협받아

ISIS, 페이스북 통해 경고...인도네시아 군경 보안 강화

인도네시아 경찰청이 보로부두르 사원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UK》지는 “8월 15일 ISIS(이라크 시리아 이슬람) 추종자라고 자신을 밝힌 페이스북 사용자의 ‘보로부두르는 성전 용사의 응징을 받을 것’이라는 테러 경고를 받고, 사원 경계를 강화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청 로니 솀피(Ronny F. Sompie) 대변인은 “테러 경고를 접한 후 IP 어드레스를 추적하는 등 범인 색출에 전념하고 있다”며 “군경 모두 사원 경비를 위해 증원하는 등 보로부두르 사원에 대한 대 테러 작전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발표했다.

보로부두르 사원은 인도네시아 자와통 야주 마젤랑 지역에 위치한 불교 사원으로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있는 세계 최대 불교 유적이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군 병력까지 동원해 혹시 모를 테러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UK》지에 따르면 ISIS가 시리아와 이라크 일부를 점령하며 세력을 넓혀 가고 있는 가운데 무슬림 인구 비중이 높은 동남 아시아에서도 ISIS 관련 단체들의 테러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10일 말레이시아에서 ISIS 추종 세력이라고 밝힌 이슬람 극단주의 집단의 대규모 폭탄 테러 계획이 경찰에 발각된 데 이어 15일 인도네시아에서도 ISIS라고 주장하는 세력의 폭탄 테러 위협이 이어



'이라크 시리아 이슬람(ISIS)'가 최근 보로부두르 사원에 대한 폭탄 테러를 경고했다. 사진은 사원을 포행하는 인도네시아 손님들.

졌다. 지난 21일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인터넷에 올린 ISIS 추종자의 테러 위협에 대해 “다른 온건 무슬림들을 모욕하고 있다”며 “인도네시아에서는 ISIS의 활동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티종교에 배타적인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은 1985년에도 보로부두르 사원을 공격해 사원의 상징과도 같은 10여 개의 사리탑을 폭발시켰다.

한편 “필리핀 역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덧붙인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UK》지는 “현재 이라크에서는 최소 100여 명의 필리핀 과격주의 청년들이 ISIS의 군사 훈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다마제디 범종을 찾아라

미얀마, 파준다웅 셋강 준설선과 잠수부 동원

8번째 도전...《The Independent》등 냉소적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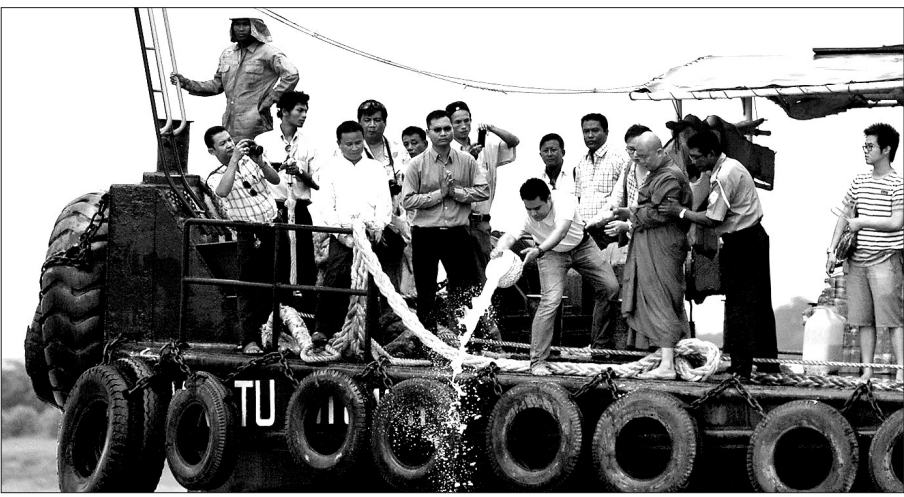
400년 전에 사라진 범종 찾기에 미얀마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The Independent》지는 “미얀마 양곤의 페구(Pegu) 강과 양곤 강이 합류하는 지점, 파준다웅(Pazundaung) 셋강에서 매일 목제 준설선과 잠수부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며 “400여 년 전에 가라앉은 세계에서 가장 큰 다마제디(Dharmazedi) 범종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범종은 1484년 다마제디 국왕이 조성, 쉐다곤 파고다에 설치한 역사상 가장 큰 종이다. 기록에 따르면 구리·금·은으로 만들어진 이 종의 높이는 540cm, 너비는 360cm, 무게 300t에 달한다. 그런데 120년 뒤인 17세기 초, 포르투갈 출신 용병 필리페 데 브리투(Philip de

Brito)가 범종을 훔쳐 달아났다. 범종을 녹여 대포를 만들기 위해서다. 당시 브리투는 범종을 뗏목에 싣고, 다시 범선에 연결해 도주했는데, 페구 강과 양곤 강의 합류 지점에서 범종을 무게를 이기지 못한 뗏목이 침몰하면서 강물에 빠졌다.

침몰한 곳은 바로 파준다웅 셋강으로 뿔갚이가 7.2m나 되는 데다, 그 주변에 3척의 범선이 가라앉아 있어 지난 25년 동안 7차례나 발굴 시도가 펼쳐졌지만, 전부 실패로 돌아갔다.

불심 깊음 미얀마인들의 이 종에 대한 애착은 갈수록 깊어져 올해 새로운 수중 발굴을 위해 25만 달러(약 2억 5000만 원)의 기금이 모아졌고 두 척의 준설선에 나눠 탑승 수 십 명의 잠수부들이 종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잠수사와 스님이 파준다웅(Pazundaung) 셋강에서 다마제디(Dharmazedi) 범종을 찾기 위해 준설선을 이용해 강바닥을 탐사하고 있다. 이번 탐사는 오는 9월 말까지 계속된다.

《The Independent》지에 따르면 이 발굴은 오는 9월 말까지 계속된다.

“15년 전 가라앉은 배의 일부와 금불상, 루비가 담긴 보석함이 발견됐다”고 말한 잠수사 툰라(Tun La·51) 씨는 “지난 25년 동안 7차례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기쁨이 우리 돈으로 2억 5천만 원이 되었다”며 “이번 모험에는 할리우드 스타 리처드 기어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전하는 《The Independent》

지는 다소 냉소적이다. 미얀마 탐사대원들이 GPS 같은 첨단과학기술에 의지하지 않고 뱃전에 앉은 불교 승려의 영감에 의지해 종의 위치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The Independent》지는 “미얀마 학자들도 ‘양곤 강과 페구 강의 강줄기가 400년 전과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현재의 강바닥에서 종을 찾을 수 없다’는 외국 탐사기술자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티베트인 여작가, 인터넷 글 올렸다 구금

중국 공안 8월 23일 인터넷 법률 규정 위반혐의로 연행

중국 티베트인 집단 거주지에 사는 티베트 여대생 작가가 인터넷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들에 관한 글들을 올린 혐의로 공안 당국에 체포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다.

중국 칭하이성 위수 티베트족 자치주 스취현 공안은 8월 23일 이 지역 출신 작가인 다와취무를 인터넷 관련 법률과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연행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은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현지 소식통들은 “다와취무가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와 중국판 카톡인 웨이신에 차별이 심한 지역 상황과 언론 자유 등에 관한 글을 수시로 올려 당국에 미운털이 박혔다”고 전했다.

그는 위수자치주 당국이 지난 2010년 4월 강진의 발생으로 초토화되다 시피한 이 지역 주민들의 복지에 무심했다고 비판했다는 것이다.

또 위수 자취현에선 지난해 8월 당국의 강압 통치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

어지기도 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 7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에 맞춰 티베트의 유명 시인인 체링 외씨에 대해 가택연금 조처를 한 것으로 보도됐다.

한편, 쓰촨성 간쯔티베트족 자치주 스취현 정커항에서 최근 임신 7개월째인 임신부가 당국의 강압 통치에 항의해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은 전했다.

지난 12일 이 지역에서 발생한 시위 도중 경찰의 발포로 숨진 주민 진바탕칭의 부인인 이 임신부는 남편이 사망한 것을 알고 당국에 원한을 품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자유아시아방송은 티베트 제2의 도시인 르카췌 난무린현 난무린진의 12개 촌에는 중국이 티베트 불교의 2인자인 11대 판첸 라마에 내세운 기알첸 노르부의 방문을 성대한 의식으로 맞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나은 기자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식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뒹면) 8cm]

기반방식 내부: 메모리폼, 폴리우레탄

나만의 완성세계 **기반**
불교인이라면 누구나 **기반**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수련에 **기반**
상용할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기반**
완벽한 **기반**
나만의 완성세계 **기반**

www.hyunbulshop.com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108 염주세트
값 30,800원
· 구성 : 108염주 + 합장주
· 크기 : 직경 10mm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www.hyunbulshop.com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나입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